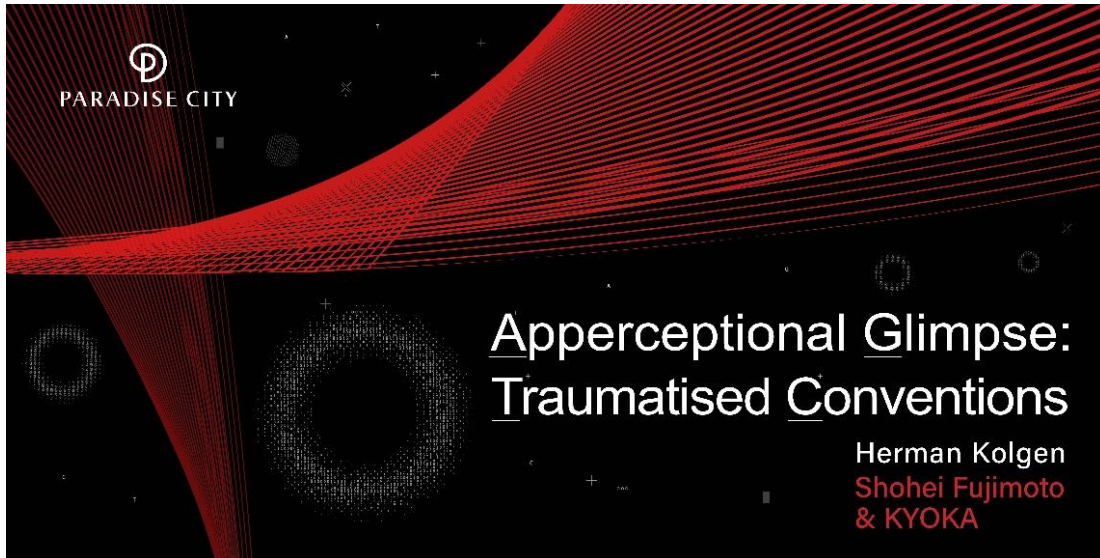


## 융합예술을 통해 COVID -19 팬데믹 시대의 인류를 엿보다 파라다이스 시티, 어퍼셉셔널 글림스 : 트라우마타이즈드 컨벤션즈 개최

- Covid-19 팬데믹을 주제로 동서양의 유명작가들과 커미션 프로젝트 진행
- 북미 유수 미디어 아트 페스티벌 ELEKTRA 2020 대표작으로 금번 신작 'LifeFORM' 선정
- 동북아 최대 규모 클럽 '크로마'에서 라이브 퍼포먼스 'TANGIBLE, INTANGIBLE' 공연



아트테인먼트 리조트 '파라다이스시티(PARADISE CITY)'는 10월 30일 클럽 '크로마(CHROMA)'에서 COVID-19를 직면한 세계를 주제로한 미디어 아트 프로그램 <어퍼셉셔널 글림스 : 트라우마타이즈드 컨벤션즈(Apperceptional Glimpse: Traumatized Conventions)>를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팬데믹을 겪고 있는 인류를 융합예술로 통찰해보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파라다이스 아트 스페이스 자체 기획으로 출발, 커미션 프로젝트로 발전하게 되었다. Audiocinematic Art의 창시자인 허만 콜겐(Herman Kolgen), 미디어 아티스트 쇼헤이 후지모토(Shohei Fujimoto) 그리고 사운드 아티스트 쿄카(Kyoka)가 참가한다. 특히 금번 프로그램을 위해 신규 제작된 콜겐의 <LifeFORM>은 공유가치를 인정받아 디지털 아트 페스티벌 일렉트라(Elektra)의 대표작으로 선정되었다. <LifeFORM>의 국내 선공개에 이어 쇼헤이와 쿄카의 팬데믹으로 형성된 범지구적 유대 관계를 표상하는 라이브 퍼포먼스 <TANGIBLE, INTANGIBLE>이 클럽 크로마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30년 이상 미디어 아트씬에서 활발하게 활동 중인 작가 콜겐은 이미지와 사운드의 상관 관계를 주 재료로 작업해왔다. 영토가 인간의 삶에 미치는 영향을 심층적으로 고찰해온 그는 쿼츠(Qwartz)부터 아르스 일렉트로니카(Ars Electronica)까지 여러 세계 유수 행사에서 수상한 바 있다.

라이브 퍼포먼스를 선보일 쇼헤이 후지모토는 생명체와 무생명체의 관계를 미디어 아트로 표현해 왔다. 작가 쇼헤이는 이번 공연에서 수많은 가시적 선인 레이저를 활용하여 가상의 구조물을 형상화해 낯선 공간감을 표현할 예정이다. 행사 당일에는 교카가 원격으로 참여하여 현대의 가치가 변화한 거리감을 작품에 입혀 시대가 직면한 새로운 경험을 담도록 만드는 사운드를 연주한다.

내년 파라다이스 아트 스페이스에서 개인전을 계획 중인 콜겐의 <LifeFORM>은 팬더믹을 통해 인류가 그동안 끊임없이 변화하는 환경 속에서 적응하고 진화해 온 과정들을 객관적으로 다룬다. 쇼헤이와 교카의 공동 작업인 <TANGIBLE, INTANGIBLE>은 인류문명 내부의 주관적 시선에서 COVID-19 를 바라보는 접근법을 붉은 색 레이저의 신경망적 연결을 통해 시각적으로 나타낸다. 팬더믹을 겪는 인류의 상황을 다각도로 접근하는 방법을 제시하는 아트 프로그램으로 전세계가 공통적으로 겪고 있는 현 세태를 예술과 기술을 통해 바라보고, 해석하여 이를 풀어 나가야 할 인류에게 새로운 관점을 제공하고자 한다.

한편, 파라다이스 아트 스페이스는 지난해 9 월 개관기념전 '무절제&절제(無節制&節制): Overstated & Understated'展을 시작으로 동시대 아트·디자인 신에서 가장 주목받는 테크니컬 아트 스튜디오 랜덤인터내셔널의 <랜덤 인터내셔널: 피지컬 알고리즘(Random International: Physical Algorithm)>展 등을 열어 세계적으로 각광받는 작가들을 국내에 꾸준히 소개해왔다..

###

자료문의	Senior Curator 방재훈	M. 010-5620-5697	E. curatorjaehoon@gmail.com
	PR&MKT Manager 신유정	M. 010-3720-3270	E. tls4951@gmail.com